

25 **今は昔の今なりや** 지금은 옛날의 지금이다

1984년 / 加藤秀俊(가토오 히데토시) / 394면 / 12,10-25 가26금 1984

이 책은 명치유신(1868) 50년이 되는 1920년을 기점으로 100년 후인 2020년을 예측한 일종의 장기 전망이다. 1984년에 발행한 책으로 394면짜리 책자이며, 원제(原題)는 「일본 및 일본인」이란 잡지 1920년 4월 특집호에 게재된 것이다. 당대 지식인 320여 명으로부터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350여 주제에 대해 예측한 내용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종교사에도 있고, 사상사에도 있다. 1920년대의 일본은 이른바 다이쇼데모크라시(大正民主主義) 전성시대, 말하자면 백가쟁명(百家争鳴)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군국주의화하기 직전의 단계라서 비교적 개방된 시대이기는 했지만 설문 자체를 분석해 보면 황실 존중의 국수주의적 냄새가 난다. 이 책을 보면 일본의 대표적 지식인에 의한 1920년대 일본의 지적 수준과 풍토를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일본의 상상력이 어느 수준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신선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양케트 자체를 놓고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하나는 무엇을 근거로 하든, 어떠한 형태이든 미래 이미지를 구성한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상상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수적으로는 극소수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100년 후냐?”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다.

이 예측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예측은 대단히 정확하였고, 많은 부분은 50년 후인 1970년대~1980년대에 실현되었다. 예를 들면 견인식 이동주택(牽引式 移動住宅), 즉 트레일러 하우스 같은 것 말이다. 또한 과학과 기술에 관한 것은 예측보다 빨리 이루어지기도 했다. 재미있게도 한자(漢字)가 전폐되고 영어가 국어가 된다는 전망도 있다. 또한 2020년까지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13명에 이를 것이라 했는데 문학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는 13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600인승 항공기가 출현한다고 예측했는데 지금의 보잉 747은 거의 여기에 가까운 상태에까지 와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일본의 수도가 관서(關西=大阪)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예측도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은 유럽을 근대화의 모델로 삼아 왔는데 일본은 언젠가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몰매를 맞고야 정신 차리게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어쨌든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 생각된다.